

# 개성 강한 작가들의 다양한 삶 읽기

최수철·김영현·최인석의 소설집

최성실 · 문학평론가

판에 박은 지식, 그러니까 인습적인 지식이 축적될수록 현실은 점점 더 불투명해지며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한다. 진정한 현실이란 우리의 삶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생긴다. 또한 살면서 진실성을 문제 삼을 경우에도 대부분 논리적인 귀결이 이뤄지거나 이성으로 해석되고 이해되는 부분만 받아들여려는 기제가 발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분명한 것에 대한 사유, 이성에 근거한 판단만이 진리에 가까울 것이라는 믿음에 대해 프루스트는 '인상'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그것이 예술가가 포착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진리'라고까지 선언했다. 그 '인상'만이 인습적인 지식과 관습에 짓눌린 진정한 삶 자체를 투명하게 직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상, 순간적인 이미지에서 읽히는 다층적인 삶의 양태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세계변혁을 꿈꾸는 작가의 욕망과도 맞물린다. 예술의, 혹은 예술에 대한 자의식을 가진 자들의 위대한 점은 아마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 인물의 행동과 사유변화에 초점

최수철과 최인석, 김영현은 이미 우리 문단에서는 중견의 자리를 차지하는 작가들이다. 이들은 80년대를 거쳐 90년대를 넘어 밀레니엄의 입구까지, 그 여정의 길이만큼이나 끈질기게 소설, 혹은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고자 노력해온 작가들임에 틀림없다. 이들 각자의 개성이 강한 만큼 소설과 삶을 잇는 방식도 각기 다르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이들의 소설, 그러니까 최수철의 《분신들》(문학과지성사), 최인석의 《나를 사랑한 페인》(문학동네), 김영현의 《내 마음의 망명정부》(강)는 모두 '주변인물'에 대한 순간적인 '인상'을 이야기거리로 삼아 80년대를 반추하거나 90년대의 지리멸렬한 삶을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맞이할, 아니 어쩌면 이미 과거에 지나쳐 버렸을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이들 소설에서는 사건이나 상황보다는 '인물'의 행동이나 사유의 변화에 중심점이 맞춰진다. 그 인물은 분신들의 형태로(최수철)

세 작가의 작품은 모두 주변인물에 대한 순간적인 인상을 이야기거리로 삼아 80년대를 반추하거나 90년대의 지리멸렬한 삶을 비판한다. 인간에 애증이 뒤섞인 이들의 연사는 단순한 소재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이야기하려 한다.

나타나거나 새장 속에 갇힌 새(김영현), 혹은 페인들(최인석)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시간을 돌고 역사를 돌아 '지금'이라는 시간에 존재하는 '인간'에 대한 애증이 뒤섞인 이들의 연사는 단순한 소재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이야기하려 한다.

《내 마음의 망명정부》의 인물들 대부분은 미래에 아무런 희망도 갖지 않는다. 작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외치던 친구들과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는 친구들의 청사진도 빛이 바래고 세상의 논리는 처음부터 부자들만이 잘사는 세상으로 정해져버렸다는 기본적인 논리로 '나'를 새장 속에 가둬 '고통'에 빠지게 하며 '개다리 영감의 죽음'을 일상적인 우리의 죽음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한 고통과 죽음의 이면에는 단지 맹목적인 생의 의지만이 존재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할 권리도 없는,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세상을 휩쓸고 있으며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초우와 함께)라는 사유가 깔렸다. 이 인물들은 자본주의의 사회주의도 모두 인간의 '배신자'며 남은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게 패버린 현실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인물들이 늘어놓는 뉘즈리면서 김영현의 또 다른 자기발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발언과 사유 뒤에 숨겨진 작가의 물음이 좀처럼 진하고 처절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90년대라는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형도가 없는 상태에서 단편적인 삶의 논리를 추상적인 틀거리



에 일률적으로 맞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 인물들의 고통이 작가가 강조해 받아들여지는 90년대식 고통이 아니라 독자가 자신의 사유로 흡입할 수 있는 '고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90년대를 정리하고 조망하는 철저한 작가의식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그런 측면에서 <개다리 영감의 죽음>은 고통이나 현실적인 패배의식 등이 천박한 휴머니즘의 차원을 넘어 상당한 문학적인 성과를 이룬 작품이다. 최소한 그의 죽음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역설하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 죽어가는 자가 보여주는 삶의 리얼리티가 탁월하게 드러난다. 그렇다면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 죽음으로부터 인물을 끌어올리려고 발버둥치는 작가가 바로 최인석이다.

## 90년대를 정리하는 하나의 방식

《나를 사랑한 페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허접쓰레기 같은 90년대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해줄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을 것이라는 작가적 전언을 깔고 구원의 방식을 모색한다. 그 방법으로 최인석은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을 자기식으로 정리하고 받아들여 끌어안는다. 거기에는 특별한 악인도 선인도 없어 단지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거듭 물어

가면서 풀리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모여 있다.

내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반추하는 방식, '내가 사랑한 페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 페인'인 것은 아마도 여기서 기인하는 것이라. 나를 사랑한 가련한 여인을 통해 역으로 가식과 거짓, 위선으로 살아온 자신을 발견하는 방식, 최인석 소설의 힘은 그 역투사에서 나온다. 그러나 그가 인용하고 있는 브레히트·하이네·두보·허균 같은 인물에 대한 단상은 좀더 작품 속에 육화되어 전달될 때, 그러니까 섬세한 매개를 통해 작품 속에 녹아서 '흔적'으로 읽힐 때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타자를 통해 자신을 반추하는 방식이 좀더 극대화되어 나타난 것이 최수철의 소설이다.

최수철의 《분신들》은 90년대 급격하게 변한 시대적인 상황 논리 속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소 무겁게 시작한다. 범박하게 말하면 진짜란 무엇일까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진짜가 가짜가 될 수 있고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수철은 그런 현실에 갈기리 찢겨진 자신의 분신들을 통해 역으로 자신의 아우라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을 그려낸다. 그들은 자신의 '동물성'을 최대한 발현하면서 절절하게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한다. 폭력·광기, 그 모든 것이 풀려진 상태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현실을 비판하기, 최수철의 매력은 거기서 비롯된다.

이들 소설에는 '감각'과 순간적인 '인상'에 의존하며 빠른 변화논리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그 관심의 초점이 다른 젊은 작가들에게서 보이는 시간과 공간이 아닌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모아진 것은 이들의 연륜 탓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90년대를 정리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선택된 것이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도 겨울나기를 거듭하면서 문학사의 공백을 넉넉하게 메워가리라. ◆

문학과지성사/A5신/342면/7500원  
강/A5신/272면/7500원  
문학동네/A5신/270면/7000원